

동화사 담선대법회

이제열 법사의 경전속의 수행법 <17>

사마타 수행의 한계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여 삼매를 이루는 사마타 수행의 한계는 진리를 깨닫는데 있어 반드시 갖추어야 될 지혜를 낳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마치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눈이 없으면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제 아무리 뼈를 깎는 수행을 하여 수승한 경지에 올랐더라도 지혜가 열리지 않으면 존재의 실상을 바로 알지 못하게 되며 생로병사를 비롯한 일체의 괴로움도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혜를 얻으려면 위빠사나를 함께 닦아야 합니다. 경전에서는 위빠사나를 부처님이 실천하신 수행법이며 깨달음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설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깨끗이 본다'는 뜻으로 한자로는



관(觀) 혹은 '조견(照見)'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빠사나 수행에서 깨끗이 보아야 할 대상은 무엇이고 얻어지는 지혜는 무엇이며 깨달아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먼저 위빠사나 수행의 대상은 자신의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인신) 수(受) 심(心) 법(法)입니다. 이를 4법처 수행이라고도 합니다. 수행자는 우선 몸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현상을 예컨대 호흡, 걸음걸이, 손놀림, 눈 깜박거림 등 수많은 작용들을 빠짐없이 관찰하는 것을 시작으로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무덤덤한 느낌 등을 관찰하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감정과 생각을 그리고 더 나아가 5온, 12처, 4성체와 같은 법의 이치를

관찰해 갑니다. 물론 이 위빠사나 수행이 스승이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야겠지만 부처님께서는 누구든지 단 7일만 닦아도 성인의 과위를 이루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위빠사나에 의해 얻어지는 지혜로는 10가지로 청정을 이루는 지혜, 존재의 생멸을 아는 지혜, 존재의 무너짐을 아는 지혜, 두려움을 극복하는 지혜, 세간의 위력스런 힘을 아는 지혜,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 깊이 속고하는 지혜, 평온의 지혜, 장애 받지 않는 수승의 지혜입니다.

수행자가 위빠사나를 닦게 되면 이 10가지의 지혜를 얻게 되고 그 힘으로 수행자는 자아의 세 가지 특성 즉 3법인으로서의 무상(無常)과 무아(無我)와 고(苦)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3법인을 깨닫게 되면, 수행자는 일체의 장애로부터 벗어나

지혜 얻으려면 위빠사나 함께 닦아야

해탈을 이뤄 다시는 생사에 윤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사마타는 지혜를 수반하지 못하지만 위빠사나에 의해 얻어진 지혜 속에는 반드시 사마타의 경지가 포함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몸과 마음의 현상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그 가운데 집중하는 수행이 수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불교수행은 지관(止觀)이 함께 하는 것으로 사마타는 위빠사나로 전환되어야만 하고 위빠사나는 사마타를 포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빠사나 수행이 부처님께서 직접적으로 수행한 방법이라 하여 사마타 수행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경전에 의거해 볼 때 사마타 수행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위빠사나 수행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기도 합니다.

■유미선원장

설우 스님의 '육조단경의 선사상과 실천'

“우리는 모두 부처” 알고 믿으면 ‘해탈’

9월 18일 대구 동화사 통일 대불전에는 500여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육조단경의 선사상과 실천'을 주제로 한 동화사 담선대법회 세 번째 장이 펼쳐졌다. 이날 논주로 나선 설우 스님(법인정사선원장)은 "모든 중생에게 불성과 반야의 자연지가 구축되어 있는 사실을 직각하면 곧 바로 돈오"라면서 "이를 통해 참된 진야의 세계를 체득함으로써 보살의 서원과 원력으로 회향하는 자비의 삶이 실현된다"며 <육조단경>의 대의를 설명했다.



설우 스님

설우 스님은 "부처가 부처로 부처행을 하는 것이 선(禪)"이라고 정의했다. 선은 부처님의 해명을 계승해서 정법안장 열반묘심의 정안을 구축한 선승들이 일상생활에서 평상심으로 수용해서 그대로 드러내는 자리라는 것이다. 때문에 선은 실천불교이며, 여기서 실천이란 어떤 목적이 있어 무엇을 채우고 꾸며야 하는 노력의 실천이 아니라, 부처가 부처의 행을 보이는 것이라고 스님은 말했다.

설우 스님은 비록 견성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내가 부처라는 사상적 확립만 있다면, 모두가 부처이기에서 서로 존경하고 공경하게 되며 평등사상이 자연스럽게 정립되어 각종 사회의 부조리도 치유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우 스님은 "부처로서 부처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회가 되면 조사선의 꽃인 보살의 만행이 나오게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의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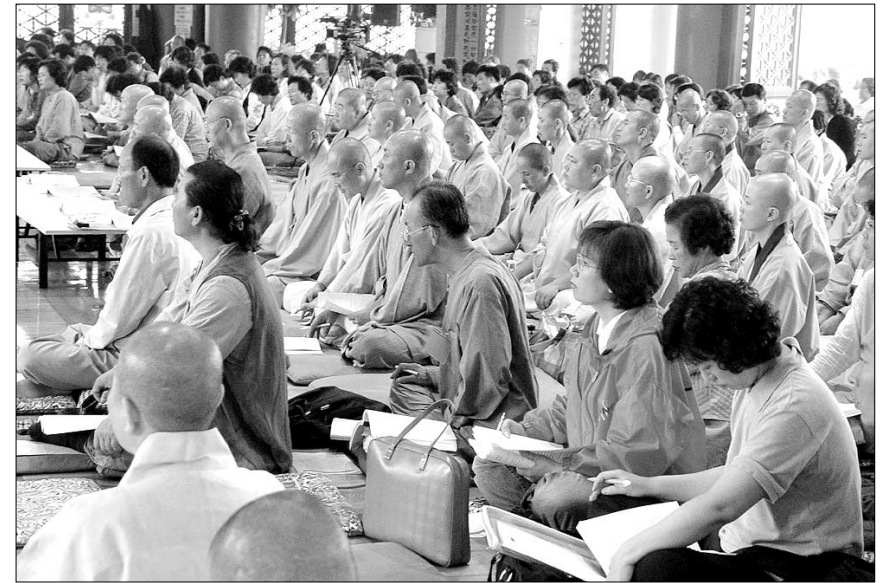
●마음은 원래부터 연기적 존재

불성이란 <열반경>의 '일체중생 실유불성(一切衆生 悉有佛性)' 즉, 일체의 중생은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육조단경>에서는 불성에는 남북이 없고, 불성의 성질은 청

정공적하다는 개념으로 사용했다. '마음의 본성이 청정하다'는 말은 무엇인가 더럽고 깨끗하다는 양변 대립적 청정한 마음의 실체성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마음은 연기적 존재이고, 공성이라는 의미다. 다시 말해 불성은 중생심의 본질적인 자성정정성을 말하며, 연기법으로서 서로 의지하여 일어나는 세계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중생속에 부처의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혜능 스님은 <단경>에서 '내 마음에 스스로 부처가 있으니 자불(自佛)아말로 진불(眞佛)'이라고 말하면서, 부처를 천국에서 인간으로, 피안에서 차안으로 끌어내렸으며, 모든 이들의 마음 속으로 끌어들었다. 아울러 중생이 부처이고 번뇌가 보이며, 즉심즉불의 본래불을 깨달아야 자기 부처를 바로 보아야 한다는 평등선언을 한 것이다.

●오직 돈오돈수...점수 철저히 배격

혜능 스님은 흥인 화상의 <금강경>에 대한 법문을 듣는 중에 '응무소주이생기심(무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려)'이라는 내용의 이치를 확연히 깨달았다. 돈오돈수는 단박에 깨쳐 닦아 마친다는 뜻이며, 여기서 깨달다는 말은 원래 부처라는 것을 체득하여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돈오는 '나는 부처다, 나는 연기적 존재'라는 연기법을 깨닫는 것이다. 돈수는 부처의 행을 말하는 것이다. 혜능 스님의 돈오돈수 사상은 체험을 통해서 확인된 율바른 믿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구경묘 각 점오정각'만을 견성이라고 선을 그었다. 혜능의 돈오돈수 사상은 훗날 당당 설법이나 선문답을 통해 스승은 직지인심을 드러내고, 기연을 계기로 제자가 견성성불하는 조사선의 가풍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때 생사심을 해



동화사 담선대법회에서 설우 스님의 설법을 경청하는 사부대중.

결하겠다는 굳은 결심과 중생을 이교득락케 하고자 하는 보살의 서원, 연기적 현상을 직시하는 삶의 가치관에 대한 확고부동한 정립 위에 이뤄지는 참된 발심이 수행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혜'는 '등불과 빛'...둘이 아니다

혜능 스님은 점수법에서 말한 계(戒)로 인해 정(定)이 생기고 정을 거쳐 혜(慧)가 발한다는 사상을 배제했다. 정은 '적적'이요 등불이라 한다면, 혜는 '성성'이며 빛을 말한다. 등불과 빛은 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사상에 입각해서 일체만법의 경계를 당해도 본래 진여불성자리(성명없는 공한자리)를 관하는 것을 '선(禪)'이라 하고, 그 경계에 집착하고 물들거나 흔들림이 없는 것을 '좌(坐)'라 한다. 또 모든 존재 현상에 살면서도 존재 현상에 구속을 당하거나 속박을 당하지 않는 것을 '선'이라 하며, 안으로 한 생각도 움직이지 않는 것을 '정(定)'이라 하고, 이것을 선정삼매라 한다.

●무념·무상·무주의 실천

혜능 스님은 불지견이 중생의 마음속에서

본래 자연지로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을 것을 누구나 강조하면서 불성사상의 구체적인 실천사상으로 무념(無念)으로 종을 삼고, 무상(無相)으로 체를 삼으며, 무주(無住)로 근본을 삼을 것을 설했다. 무념은 부처로서의 실천행으로 모든 생각을 하지 않고 의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생각이라도 어느 한 경계나 사물에 대하여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무상은 상을 떠난 것으로 자기 색신 속의 자성 삼신불에 귀의하게 하여 청정한 마음달이 바로 자성불임을 확인하면서 바로 지금 즉심성불할 것을 강조했다. 무주는 사람의 본래 성품이 한 생각에도 머무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혜능 스님에 의해 <금강경>의 반야바라밀의 정신에 의거해 남종선의 실천사상으로 정리됐다.

대구배재선 기자

원명선원 참선불교대학 개설

제주 원명선원(회주 대표, www.wmson.won.net)은 10월 3일부터 2005년 2월까지 매일 1·3주 일요일 오전 10시30분~12시 30분 참선불교대학을 개설한다.

일반 교양대학과는 달리 참선 위주의 교육으로만 진행되는 참선불교대학은 성철, 서암 스님의 문하에서 정진하고 30여 년간 선수련회를 열어 온 대표 스님(사지)이



공부 내용은 일상속에서 응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제들로 이뤄진다. △이것이 있으면서 무엇이 있다(緣起) △치우침이 없는 곳

직접 법문과 독창, 문답 생활과 연계한 상담으로 지도한다는 게 특징. '한 마디(一句)에 사람이 뒤바뀌고 세상이 뒤집히는 회두 참선'을 지향한다는 원명선원의

을 향하여(中道) △어떤 사물에든 절대적인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空) △대자유의 행복(解脫) △절대안정은 생사의 초월에서 가능하다(涅槃) △본래부처와 본래정정을 이미 지니고 있다 △자성불(自性佛)이 법력(法力)을 쓰고 산다 △괴로움과 장애 가운데 광명(光明)과 해탈의 세계가 있다 △시제와 삼매 △마음을 비운다(無心) △회두 참구법의 구체적인 내용 및 단계적인 과정 등이다. (064)755-3322 김재경 기자

「4박5일 기공 지도사반 강좌」
불가에서 비밀리에 전해져온 신비의 기치요법 전수!
 전신모세공 호흡법으로 사기, 병기를 배출하여 육체를 정화하는 비법!
天一氣功
 www.chgg.co.kr
 통증치료법의 전수를 받는다!
 소주전속성법, 상기병을 치료하는 호흡법
 ※영가천도 많이 하셔서 몸이 탁해 지신 스님들 탁한 기운 스스로 정화하는 법 공개
 천일기공연구회 소백산수련원
 Tel. (054)638-2224

현대불교신문 창사10주년 독자사은대잔치

탄허스님 육성 강의 (동양사상 특강 CD)

탄허스님의 육성법문 일부분은 탄허닷컴(www.tanheo.com) 육성특기 코너에서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단! **“500분”** 제만!
 기회를 드립니다
 <<탄허스님의 佛·儒·仙·華嚴 특강(CD18매)>>

출고정가 15만원(정가 6000원)
참고교재 1권 포함 5만원(74.8%할인)

탄허 대중사께서 1977년과 1982년 동안저 기간에 전국 강원의 수강이상의 스님 80여 명을 대상으로 하루 8시간씩 강의한 내용을 녹음한 250여 개의 테이프를 간주러 18장의 CD에 담아 처음으로 공개하는 스님의 육성 강의

■ 판매책 방 : 여시야문 전화 02)737-0695(www.yosiamun.com)
 마하물 : 주문전화 02)732-1520 (www.mahamall.co.kr)
 주소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행 제1회 낙태(유산)아 무보시 49일 천도 대법회

아빠, 엄마 저희에게도 새생명을 주세요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정자와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난자의 만남으로 46개의 인간염색체를 가진 뚜렷한 인간 그것은 바로 태아입니다. 이것은 홍당무도 토기도 아닌 오직 인간일 뿐입니다. 나의 잘못된 행으로 비롯된 무서운 살생 그것도 바로 나의 자식을 살생한 과보를 그냥 무태만 하시겠습니까. 모두 참회 합시다. 그리고 허공을 떠돌고 있을 나의 어린 생명을 삶의 모습으로 되돌려 줍시다. 주지 지흥 합장

❖ 일시 : ●입재 - 10월 14일(음) 9월 1일 오전 10시
 매주 목요일 (10월 21, 28일 11월 4, 11, 18일) 재봉행
 ●회양 - 11월 26일(음) 10월 15일(동안결재)
 ※당일 대중공양 보시를 받습니다.

❖ 기도비 : 무료
 ❖ 접 수 : 지혜정사 종무실, 수성 포교원 지혜선원
 ❖ 문의전화 : (054)975-7766, 0104 (053)752-0108
 ❖ 위 치 : 팔공산 한티재대구 기성삼거리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1005번지
청법수행 청진도량 팔공산 지혜정사